이 책은 성도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방향을 네 가지 주제로 짚어냅니다.

첫째, [회중이 살아나는 예배]에서는 회중이 예배의 능동적인 참여자임을 회복하고, 소음과 형식에 가려진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서는 설교가 교회 조직의 유지나 내부 결속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신뢰를 세우는 교회의 재정]에서는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되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넷째, [함께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가 특정 세대나 계층만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세대와 계층을 넘어 서로를 환영하고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 • •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오늘의 교회에 신앙의 본질을 묻는 책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 외침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이자 새로운 회복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9 791124 083147 03230
ISBN 979-11-24083-14-7 (03230)
값 25,000원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평신도의 성찰과 외침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최병철 지음
예영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평신도의 성찰과 외침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A Healthy Church, Joyful Believers: A Layperson's Reflection and Call for Renewal in the Church and Its Leadership

최병철 지음

예영 커뮤니케이션

| 추천의 글 |

오랜 세월 저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나는 그의 신앙의 진정성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교회를 쉽게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의 건강성에 대한 여러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의식과 의미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오랜 세월 교육자이자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몸담아 왔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여러 관행과 제도들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차분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책의 강점은 저자의 평생 연구 분야인 예배와 워십 음악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제언으로 시작하여, 설교, 교회 재정, 공동체 생활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핵심 영역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함께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념적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 85:10),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고도의 영적 균형감각을 보여 줍니다. 저자는 감정적 주장이나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성경 본문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해석과 대안들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신학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헌금 문화, 교회의 권위 구조, 직분 이해, 축도와 만인 제사장 사상, 교회 공동체의 본질 등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개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성경 해석과 교회사적 이해를 토대로 신중하게 전개됩니다. 물론 모든 독자가 모든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책은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신앙적 성찰의 기회를, 목회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교회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고, 한국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 솔트레이크시티 근교 서재에서 **김진섭 박사**

(현 사단법인 이스라엘포럼 대표, 미국 연방·주정부 비영리단체 IFIA 설립 및 대표,
전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겸 신대원장)

| 추천의 글 |

저자와의 인연이 어느새 56년이 되었다.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중학생 교복을 입고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시절이었다. 단정한 교복 차림과 굳게 다문 입술, 그리고 반짝이던 눈망울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번에 출판되는 그의 책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오늘날 예배가 공연형식으로 변질된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요즘 내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동안, 마이크 없이 부르는 회중의 목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버린다. 최 교수는 전문가답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이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나는 그동안 "참자, 인내하자"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였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장로로서 오늘의 현실 앞에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 '신뢰를 세우는 교회의 재정', '함께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모두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학자답게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들을 차분히 풀어내며,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행간마다 나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건강한 교회란 초대교회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당시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냈다. 오늘날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같은 시대 같은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 마음이 아파온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역시 분명하다. 예배의 소리는 지나치게 크고, 설교에는 복음이 약하며, 재정은 신뢰를 잃어가고, 이웃을 향한 겸손의 마음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화로 나아갈 목회자는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원리는 여전히 옳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는 많아졌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역설적인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최 교수도 나도 이제 구세대가 되었다. 어느새 우리는 예배당 한켠에 앉아 조용히 생각을 나누다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나 역시 장로로서 20여 년을 섬기며 다툼을 말리고 지켜보는 데 그쳤던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월을 보낸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이 한국 교회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성도라면 누구나 곁에 두고 읽으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상윤 박사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 차 례 |

추천의 글 4
머리말 13

첫 번째 주제 · 회중이 살아나는 예배

프롤로그 20
1. 한국 교회의 위기와 예배의 변질 24
2. 미국 교회의 워십 음악 변천 29
예수 운동과 마라나타 뮤직 29
마라나타 뮤직과 교회음악의 산업화 35
빈야드 운동과 현대 워십의 정착 40
CCM과 교회의 문화적 수용 45
1990–2000년대 CCM 산업화와 메가처치 문화 52
대중문화와의 긴장, 그리고 반작용 57
3. 한국 교회의 워십 음악 수용과 변형 67
1987년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시작 67
1990년대 '열린 예배'의 확산 69
음향·공간 구조의 변화 71
4. 한국과 미국의 워십 비교 88
예배 형식과 회중성의 차이 90
회중의 건강을 배려한 정책 92
신학적·문화적 결과 비교 95
5. 회중 중심 예배 회복을 위한 제언 98
에필로그 102

두 번째 주제 · 복음을 전하는 설교

프롤로그 106
1. 복음적 설교란 무엇인가? 109
2. 복음과 율법의 긴장 112
교회사 속의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116
한국 교회 속의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120
한국 교회의 율법주의적 특징 124
복음주의적 갱신 운동 127
3. 율법적 설교와 복음적 설교의 차이 130
4. 바르지 못한 설교 136
5. 성도가 설교를 분별하는 방법 140
6. 복음적 설교의 실제 예시 144
7. 복음적 설교를 사모하는 성도의 태도 148
에필로그 151

세 번째 주제 · 신뢰를 세우는 교회의 재정

프롤로그 156

1.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 161

2. 세습에 대한 성경적 성찰 169

3. 원로목사 제도에 대한 성찰 174

4. 교회의 마지막도 신뢰받아야 한다 181

- 폐쇄와 청산은 서로 다른 과정이다 184
-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186
-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 189
- 정상적인 교회 폐쇄와 청산의 기본 절차 192
- 교회의 마지막 모습도 신앙의 고백이다 196

5. 익숙한 교회의 관행들 199

6. 한국 교회, 언제부터 돈을 탐하기 시작했는가? 203

7. 시스템이 문제다 207

8. 축도와 권위주의의 그림자 210

9.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민낯 217

10. 헌금 문화의 상품화 221

11. 평신도가 깨어야 한다 225

12.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길 229

에필로그 240

네 번째 주제 · 함께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

프롤로그 244

1. 초대교회의 평등 공동체 249

2. 제도화된 교회의 현실 251

3. 대형 교회 현상 258

4. 이념에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 267

- 실제 사례로 본 교회의 정치화 279
- 목회자의 정치 발언과 성도의 양심 282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287
- 왜 한국 교회는 보수화되었는가? 290
- 오늘의 교회를 향한 제언 294

5. 교회의 성경적 기준 298

6.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길 303

7. 세대 간 소통의 회복 308

8. 교회를 건강하게 311

9.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도의 역할 316

10. 교회 개혁의 전망과 도전 323

에필로그 329

맺음말 332

부록 · 셀프 체크리스트 / 자료실

내 신앙은 복음적인가, 율법적인가? 337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338
참된 예배, 나는 예배자인가? 340
내가 선호하는 예배 음악은 찬송가인가, 현대 찬양인가? 341
율법적 신앙 vs. 복음적 신앙 342
건강한 교회란? 345
참된 예배란? 349
설문지 채점 방법과 결과 351

참고문헌 354

| 머리말 |

이 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평신도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가까이 생활하며 신앙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유년과 청소년 시절, 보수 신학 정통에 속한 예장 합동과 고신 측 교회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특히 고등부 시절 담당 전도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며 신앙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가주의 메트로폴리탄주립병원(Metropolitan State Hospital)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던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온 찬양팀이 미국에서 처음 개최한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LA의 큰 스타디움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는데, 집회의 시작부터 음악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옥타브를 높여가며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들이었습니다. 음악이 점차 정점을 향해 가던 때에, 무대 한가운데에 큰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의 형상이 등장했습니다. 곧 로마 병정 복장을 한 사람이 무대에 나와 채찍으로 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 소리가 온 경기장 안을 울렸고, 잠시 후 불이 꺼진 적막 속에 무거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예수님을 십자가